

12월 16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2월 16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증시 다시 하락 [다우: 8,564.53pt (-0.75%)]	뉴욕증시가 15일(현지시간) 이번 주 첫날을 약세로 마감했음. 하루 앞으로 다가선 금리결정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부진한 경기지표가 부담으로 작용했음. 특히 월가의 사상 최대의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인 `매도프 스캔들`도 투자심리에 부담을 줬고, 부시 행정부가 빅3 지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실제 지원여부를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가세했음.
제조업 경기지표 부진	미국 뉴욕 지역의 12월 제조업 경기가 2001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음. 뉴욕 연방은행이 이날 발표한 1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는 마이너스 25.8을 기록해 지금까지 가장 저조했던 지난 11월(25.4)보다도 나빴음.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기준점인 `0`을 상회할 경우 제조업 경기확장을, 이를 밑돌아 마이너스를 보일 경우 경기위축을 나타냄.
금리결정·자동차 지원 여부 좀 더 지켜보자 `관망세` 확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금리결정을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관망세가 늘었음. 미국의 경기후퇴(recession)가 작년 12월 이후 1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경기지표 부진이 말해주듯이 미국의 리세션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전문가들은 미국이 현재 1%인 연방기금금리를 0.5%포인트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매도프 스캔들 금융주에 부담	월스트리트 사상 최대의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이 매도프 스캔들이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줬음. 고수익을 미끼로 나중에 돈을 맡기는 사람의 투자금으로 미리 투자한 사람의 수익을 지급하는 소위 `폰지사기(Ponzi Scheme)`의 피해가 500억달러에 달하고 있음. 피해자중에는 HSBC를 비롯해 로얄뱅크오브스코틀랜드, BNP파리바, 방코산탄다르, 노무라홀딩스 등 각국의 내노라하는 금융기관들이 포함돼 있어, 향후 각 기관들의 구체적인 투자손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글로벌 금융주에게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가, 50弗 찍고 하락 [WTI: \$44.51 (-\$1.77)]	국제 유가가 2주만에 처음으로 50달러선을 돌파한 뒤 하락세로 돌아섰음. 글로벌 경기후퇴에 따른 수요둔화 우려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전망을 압도했음. 알라론 트레이딩의 필 플린 부사장은 "원유시장은 OPEC이 감산을 실행에 옮길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OPEC이 감산에 나선다고 해도 경기둔화는 어찌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제목	주요 내용
파운드화의 굴욕	세계에서 가장 비싼 통화 가운데 하나였던 영국 파운드화 굴욕. 주요 선진국 통화 가운데 미 달러화 대비 절하율이 가장 큰 것은 물론, 최근에는 한 때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던 유로화와의 이젠 1대1로 거래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실제 교환환율은 이미 1대1을 넘음. 이 같은 현상은 영국의 심각한 경기침체 때문.
유럽은행 매도프 피해 100억弗 이상	버나드 매도프(70)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의 500억달러대 금융사기로 유럽계 은행들이 입은 피해규모는 100억달러 이상. 헤지펀드 업계는 거의 비상 분위기. 이번 시가 사건으로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높아지면서 환매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
日정부 "내년 日 제로 성장" 공식 표명할 듯	일본 정부는 내년에 일본 경제가 '제로성장'할 것이라고 공식으로 입을 모음. 16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전날 일본 정부는 내년에 물가변동을 제외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0%, 명목 GDP는 0.1%에 그칠 것으로 정리하고 오는 19일 각료회의에서 방침을 굳히기로 했음. 일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도 대폭 하향.
中, 자동차 부품 수입 관세 관련 분쟁서 패소	중국이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와 벌인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 관련 통산분쟁에서 패소. 연합뉴스는 16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중국이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를 외국 완성차 수입관세와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무역규정 위반이라는 WTO 분쟁조정 패널의 1심 결정을 재확인했다고 보도.
14조원 4대강 정비사업 본격 추진	오는 2012년까지 총 14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정비사업이 7개 선도사업의 연내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지만 `정부가 대운하를 우회추진한다`는 목소리도 높아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임. 국토부가 밝힌 `4대강 종합정비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7개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연차적으로 착수하며, 2011년말까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완료(댐·저수지 등은 2012년)할 계획.
"카드·할부금융채 발행 9월이후 매달 반토막"	글로벌 신용경색이 본격화된 9월 이후 카드채나 할부금융채 등 여전채 발행실적이 매달 반토막으로 줄고 있으며,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월 중 여전채 발행금액은 3580억원으로 지난달 기록했던 7,050억원에 비해 50% 가까이 감소. 이달 발행실적을 9월 여전채 발행실적(1조 6,000억원)과 비교하면 4분의 1토막 수준임.
내년 유통업 성장률 3.2%..183조 예상	신세계유통산업연구소는 15일 `2009년 유통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국내 유통산업이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 여파로 올해보다 3.2% 신장하는 수준에 머물 전망이며, 전체 시장규모도 183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